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1, 신성한 은폐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신성한 은폐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셸렌버그라는 학자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신론자, 특히 기독교인을 포함한 철학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은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의 문제의 한 측면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순전히 인식론적 문제로 여기고, 그것은 단지 신이 자신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재한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믿음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Peter van Inwagen은 신성한 은폐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징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존재한다면, 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징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틀림없는 징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모든 전제가 옳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유신론에 대한 합리적 믿음에 대한 일종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벤 인와건은 악이 없더라도 신성한 은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도 죄나 도덕적 악을 저지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도둑질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강간이나 살인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 고통도 없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암도 없고, 심장병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신체적 상처는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도덕적 악도 없는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신성한 은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을 믿을지라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은폐 문제는 악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인다. 밴 인와건이 말했듯이, 실제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신의 은폐 문제는 순전히 인식론적 문제이다. 밴 인와건은 신이 사람들이 왜 그를 믿게 되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개념, 이것이 그에게 강조점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믿게 되었는지, 또는 왜 그를 믿는지 정확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밴 인와건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신의 메시지가 이와 비슷한 것과 같은 보편적인 기적은 신에 대한 맨손의 믿음을 유발할 뿐, 개인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은 중요한 개인적 변화에 관심이 있으며, 그의 숨겨진 모습이 그에 기여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변형이나 그러한 변형의 본질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힌 또 다른 학자는 마이클 머레이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자유 의지 신정론을 적용하여 인간의 자유 의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이고 신을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고 신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머레이는 획득해야 할 특정 조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또는 죄송합니다. 특히 위협의 맥락에서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위협과 같은 종류의 위협에 의해 강요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중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머레이가 논의하는 위협의 중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가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위협, 아시다시피,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과 처벌의 위협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위협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강요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의 중요성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위협의 중요성을 잠재적으로 완화하거나 위협을 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위협의 결과가 자신에게 해롭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위협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위협 임박성으로, 특정 조건에서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사람이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머레이는 위협 임박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확률적 위협 임박성입니다. 제가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뒤따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적 위협 임박성, 신을 거부한 후 얼마나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식적 위협 임박성은 위협이 얼마나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지와 관련이 있고, 마지막으로 위협받는 사람의 방탕함을 고려하는데, 이는 위협받는 사람이 자신의 안녕을 무시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궁극적인 고통에 대한 위협은 그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협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최종 운명에 대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Murray가 논의하는 위협의 중요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입니다.

이제 Murray는 위협에서의 강박의 정도는 위협의 강도와 압박성에 정비례하고 위협받는 사람의 방탕함에 반비례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협의 강도가 클수록 위협이 압박하고, 그러면 강박의 정도가 커집니다. 사람이 방탕할수록, 맞죠, 궁극적인 안녕에 대한 관심이 적고, 강박이 적을수록, 자신의 안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위협이 클수록, 관심이 적고, 위협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악한 삶에 대한 지옥의 위협에 직면하여 인간의 자유가 가능하려면 이 위협은 어떻게든 완화되어야 하며, 그러면 위협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협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위협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신 것일까요? 머레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의 위협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을 소송으로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요. 코를 주먹으로 때릴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영원한 저주로 누군가를 위협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런 일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위협받는 사람의 방탕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드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 자신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선이고 미덕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위협의 압박함은 어때요? 위협받는 사람의 위협받는 힘과 방탕함은 위협의 심각성이 줄어들도록 조정하지 않으셨다면, 위협의 압박함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 위협의 압박성은 어떨까요? 글썄요, 아니요, 성경에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하므로, 하나님께서 위협의 중요성을 그렇게 줄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위협의 중요성은 어떨까요? 머레이는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들이 즉시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시간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종류의 것은 시간적 고려 사항만으로 위협이 얼마나 완화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즉시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약간 완화됩니다.

하지만 머레이가 집중하는 이 세 번째 요인만큼은 아니지만, 신이 위협의 중요성을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은 인식적 위협의 임박성입니다. 머레이에 따르면, 이것은 신이 위협의 중요성에서 강박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신은 자신을 숨김으로써 위협을 인식적으로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머레이의 주장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 은폐는 인간의 복종이나 불복종의 자유를 보존하는 중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듯합니다. 신이 숨겨져 있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에 대한 모호함이 있어 지옥에서의 궁극적인 처벌의 위협을 충분히 줄여 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신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덜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보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누가 신의 마음을 알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는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당신은 분명 자신을 숨기는 신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신이 어느 정도, 아마도 상당한 정도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레이에게는 이것이 이점이 될 것입니다. 위협의 심각성을 줄이고,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거나 보장합니다. 이제, 러버링이라는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머레이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머레이의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실제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러버링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머레이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성격을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신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성격을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행동하도록 강요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도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신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러버링에 따르면 머레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형이상학적 가정을 합니다. 하나는 도덕성과 신의 명령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이 믿는 바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러버링에 따르면, 강요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성격을 개발하는 능력을 잃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는 머레이가 강요나 강압이 좋은 도덕적 성격을 개발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고, 머레이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그는 이와 관련된 다른 위험 중 하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러버링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성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행동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무죄한 무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방식으로 무지하다면, 당신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성격을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의 행동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 성격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필요 조건은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선한 행동을 하려고 의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러버링에 따르면 머레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무고하게 무지하다면 도덕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의도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이

숨겨져 있다면, 이것이 핵심 요점입니다. 신이 숨겨져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당하게 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따라서 선이 무엇인지 무고하게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허무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은폐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은 한 손으로 받는 것과 다른 손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위협의 중요성을 줄임으로써 강박을 줄인다고 인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러면 도덕적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나 확신도 앗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진정으로 좋은 행동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러버링에 따르면 머레이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러버링은 신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성격을 개발할 능력이 없으며, 그것은 끔찍한 손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숨김과 신의 숨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성격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성격을 개발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명제와 모순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러버링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신론에 대한 일종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신은 우리가 그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만큼 자신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들이 도덕적 선을 알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의 현실에 압도당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할 실제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이를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버링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의 주장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연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명확한 주제로, 신이 인간의 마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이해에 짜넣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옳고 그름, 미덕과 악덕, 선과 악, 선과 악의 차이를 알기 위해 신으로부터 기록된 계시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버링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는 그것을 간략하게 고려하지만, 자연 질서를 통해 도덕적 진실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받는 것인 그 접근 방식의 한 가지 버전만 고려한 후 너무 성급하게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신은 인간의 마음을 구성한 방식을 통해 우리의 운영 체계, 인지 구조, 옳고 그름에 대한 일종의 이해를 구축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알다시피, 제 생각에 꽤 간단하고 그럴듯한 견해라고 부를 것입니다. 신이 양심이나 마음에 기록된 신의 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도덕적 진실에 대한 타고난 인식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버링의 주장에 대해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성한 은폐에 대한 약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신성한 은폐입니다.